

소비자

지역유통가, 한파·명절특수 한번에 잡는다

설 선물 사전 예약판매… 실속형 상품 20% 늘려

백화점, 오늘부터 17일간 신년맞이 정기세일

지역 유통가가 새해부터 대대적인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다. 연초 마케팅 성과로 한 해 농사를 가늠해볼 수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한 달 넘은 설 선물 예약 판매까지 시작했으며, 연말 누렸던 '한파 특수'를 이용하기 위해 방한의류를 정기세일 주력 상품으로 내걸고 물량을 대폭 늘려 준비했다.

◇설 선물세트 예약 1주일 앞당겨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일부터 24일까지 설 선물세트를 사전 판매한다. 예약판매 할인율은 5~50%로 실속형 상품의 물량을 전년보다 20% 가량 늘렸다.

상품군 별로는 정유류를 10%, 과일류를 5%, 굽비와 김세트를 15%를 각각 할인하고 흥삼액과 비타민 등 건강식품은 30~50%까지 할인한다. (주)광주신세계는 11~24일까지

설 선물 예약 판매를 진행하며 할인율은 최대 30% 수준이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7~24일 설 물세트 예약 주문을 받아 100여개 품목을 5~50% 할인한다.

이마트는 4일부터 24일까지 '2013

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행사품목은 총 135개로 예전보다 30% 이상 늘려 사상 최다 규모로 준비했으며 활성화우를 비롯해 참글비, 명품파, 생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내놨다.

롯데마트는 3~20일 까지 총 200여 가지 제품을 최대 30% 할인한 가격

에 예약판매하며, 홈플러스는 2~23일 78종의 상품을 예약판매하며 품목에 따라 덤을 주거나 상품권,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년 세일로 한파 특수 이어가자

(주)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이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7일간 '신년맞이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주)광주신세계는 신년 정기세일을 위해 브랜드 별로 상품물량을 전년대비 최대 30% 가량 늘렸으며 정기세일 기간 중 1층 광장에서는 다양 한 행사도 연다. '신기한 버블쇼'(5일 오후 3시, 5시), '새해 운세를 알아보는 타로카드'(6일 오후 2~6시)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모피, 아웃도어 의류 등 방한의류를 주력 상품으로 내놨으며 실속 대형 기획행사도

마련했다. 세일 기간 중 2~3층 모피 매장에서는 '롯데 모피 페스티벌'을 열고 200만~500만원대 중저가 모피 상품을 선보인다. 또 영세선, 캐리터 등 여성의류 브랜드들은 겨울 코트, 패딩을 최대 40% 할인판매하는 '여성 방한의류 대전'(4~8일 까지, 8층 이벤트 홀)을,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신년맞이 특집전'(.. 지하 1층 이벤트 홀)을 열고 이월상품을 3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신년 슈퍼 파워세일'을 진행하고 세일 기간 중 매주 금요일마다 '슈퍼 프라이데이' 상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할인전을 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0kg 세탁물을 한번에

삼성전자, 美 가전전시회서 최대용량 세탁기 선봬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CES 2013'(1월 8일~11일)에서 업계 최대용량인 5.0 큐빅피트(Cu.ft)의 전자동 세탁기(사진)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 세탁기는 약 20kg의 세탁물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출시된 세탁기의 최대용량은 약 19kg이었다.

전자동 세탁기는 위쪽에서 문을 여는 세탁기로 미국 시장에서는 앞쪽에서 문을 여는 드럼세탁기보다 2배 이상 팔린다.

이번에 선보이는 세탁기(WA 50F)는 목욕타월 36장을 한번에 세탁할 수 있고 강력한 펌프로 물을 위에서 쓸어주는 '아쿠아젯'(AquaJet)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돼 세탁력이 높아졌다.

초정밀 진동 감지 센서 채용으로 소음을 줄여 늦은 밤에도 소음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컨트롤 패널에 크롬 테두리를 적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곡면의 와이드 도어 글라스를 채택해 디자인도 차별화했다.

삼성전자는 이 세탁기와 함께 7.4 큐빅피트 용량(약 20kg 건조 가능)의 건조기(DV50F)도 출시한다.

인조기는 '배기구 막힘 감지 장치'인 'Vent Sensor'를 탑재해 배기구 막힘에 따른 화재 위험을 줄였다. 건조 중 소량의 스팀을 발생시켜 정전기를 줄이면서 냄새와 옷감 주름까지 없애 줄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이젠 체크카드로 영화관 할인 혜택

KB국민카드, 적립 대신 가맹점 할인… 서민대상 '제2 혜담카드' 출시

체크카드 1위 업체인 KB국민카드가 포인트 적립 대신에 가맹점 할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의 국민카드 사장은 3일 "국민 카드가 2012년 체크카드 부분에서 농협을 제치고 이용금액 1위에 올라섰다"면서 "국민카드가 체크카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시장이 체크카드 중심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크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한 대안이 되고,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이 체크카드로의 시장 재

권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수수료율이 내려가고 1만원 미만 소액 결제가 늘어 체크카드 부가 혜택의 변화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체크카드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포인트 적립에 집중돼 있었다. 포인트는 나중에 슬리피 할인에 활용이 있어 고객이 불만이 커졌다.

국민카드는 체크카드 1위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신용카드처럼 영화관, 놀이공원 등 가맹점 이용 시 할인을 많이 해주는 서비스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신용카드에 맞먹는 부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도 올해 체크카드 사업을 강화하기로 해 국민카드의 이런 움직임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카드와 신용카드 부문 2위 자리리를 나누는 국민카드는 고객이 신용카드 1장만 있어도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카드' 공략도 강화한다.

지난해 12가지 혜택을 고객이 골라 담을 수 있도록 '혜담카드'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혜담카드'를 상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계

속 자동납부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계

속 자동납부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계

속 자동납부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맺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

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를 기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